

## 국가의 목적 - 자족성, 행복, 적절한 것의 관계\*

김혜경

(인제대학교 인문학부)

### 1. 소크라테스, 자기변호를 요청받다.

#### 1-1) 요청받은 아폴로기아를 아날로기아로 시작하는 소크라테스

아데이만토스는 소크라테스를 위해 걱정한다. 그의 구상을 들은 사람들이 제기할 불만과 평가에 맞서 과연 “어떻게 당신의 입장을 변호하시겠어요(τί ἀπολογία)?”<sup>1)</sup>

\* 본 논문은 2008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구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1) 『국가』 4권의 대화를 연 것은 소크라테스가 지정한 수호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대중의 반격을 예상하는 아데이만토스였다. 역사 속의 소크라테스의 아폴로기아가 그 범접에 모였던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났다고 알려졌듯, 플라톤의 소크라테스가 내놓는 아폴로기아 역시 아데이만토스의 예상을 넘어선 것이었고 이로써 논의의 진로도 전환된다.

주 제 어: 비자족성-자족성, 행복, 적절한 것, 국가의 목적,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insufficiency & self-sufficiency, happiness(eudaimonia), what are  
appropriates(ta prosēkonta), aim of the state(telos of the state), Plato  
& Aristotle

만일 소크라테스의 구상대로 국가가 수립되고 그 국가의 수호자로서는 소크라테스가 강제하다시피 제안한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sup>2)</sup> 다름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제안이 온당치 못한 처사를 한다는 소크라테스를 향한 비난을 불러 올 것이라는 걱정이 그를 스쳤던 것이다.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가 세우는 나라에서 이 나라의 수호자들은 수호자 노릇에 적합한 또는 탁월한 자질을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결코 쉽지 않은 오랜 교육과정까지 거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들에게 공동식사와 공동거주로 대표되는 검박한 일상만을 허락할 뿐이다. 그렇다면 그의 제안을 들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국가가 진정으로 이들에게 속함에도 불구하고<sup>3)</sup> 수호자들은 자신의 국가로부터 좋은 것이라곤 전혀 누리지 못하는 처지로 몰리고 말았다고. “품삿꾼들처럼, 국가에 눌러앉아 파수꾼 노릇이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듯 보이는” 이 수호자들을 위한 항의를 아테이만토스는 예상한 것이다. 어떤 자기변호를 준비할 것인가?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항의를 받아낼 변명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호자들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항변 거리를 덧붙여 놓기까지 했다.<sup>4)</sup>

그리고 두 방향에서 응답한다. 일단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의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호자들이 가장 행복한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이 가능성은 관련된 논의들의 진행을 마무리하고서 다시 확인

2) 『국가』 2권 374e4에서부터 3권 전체에 걸쳐 소크라테스는 수호자 일을 하기에 적합한 성향에 대해 그리고 이들이 받아야 할 양육과 교육 방식 및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글라우콘과 아테이만토스가 번갈아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에 응했다. 415e3-417b9, 3권말에 소크라테스는 그런 수호자들에게 허락될 것 그리고 금지될 생활방식에 대해 설명했고 글라우콘은 소크라테스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아테이만토스로서는 소크라테스의 엄격한 또는 가혹한 처사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3) ὄν ἔστι μὲν ἡ πόλις τῆ ἀληθεία 419a3-4 『국가』안에 수립된 국가가 수호자들의 국가라는 이 언급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했던 『국가』비판과 연관해 뒷 절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기로 한다.

4) 『국가』 420a2-7. 이 부분은 2-2)에서 인용하고 논의할 것이다.

될 것이다. 뒤이어 시작하는 그의 응수는 유비(analogia)를 거친다. 유비를 통한 변론 혹은 설명은 소크라테스 혹은 플라톤이 즐겨 택하는 길이다. 이 유비는 아테이만토스가 소크라테스를 향해 제기한 의문에 대한 답변 통로이자 『국가』의 저자가 자신들이 수행하는 전체 과제에 대해 어떤 자기이해를 정립하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다시 말해 국가를 수립하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목적에 대한 자기정당화로 읽을 수 있다.

이것은[사람들의 비난은] 사람의 상(ἀνδριάντα)에 채색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는 그 상에서 가장 빼어난 부분에 가장 빼어난 물감을 칠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과 같네. 가장 빼어난 부분인 눈이 자색이 아니라 검정 물감으로 채색되어 있다고 해서 말이야.<sup>5)</sup>

소크라테스를 향해 쏟아지리라고 예상된 비난은 그가 세운 국가가 수호자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난이며 그로 인해 수호자들은 결국 자신에게 걸 맞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런데 『국가』의 저자는 분명히 한다. 『국가』의 과제는 다름 아니라 행복을 짓는 일이다.<sup>6)</sup> 그 일부를 인용한 본문의 유비에서도 알 수 있듯 행복한 국가를 구성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소수의 행복한 사람을 국가 안에 자리잡아줌으로써 행복한 국가를 세울 수도 있고, 이와는 달리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를 행복하게 함으로써 과제를 달성할 수도 있다. 아테이만토스의 예상과 같이, 누군가가 소크라테스를 향해 비난해 온다면 그것은 행복한 국가라는 국가수립의 목적이 첫 번째 방식을 모범으로 달성될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화를 이끌고 가는 소크라테스의 지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가장 탁월한 부분일지라도 한 부분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완수할 수 없는 것이 국가의 목적인 행복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 과업인가? 행복한 국가란 어떤 국가인가? 국가의 목적은 구성원의 행복

5) 『국가』 420c4-8. 인물상 채색의 유비는 420c4에서 시작하여 421c6에서 일단락된다. 이 유비는 다음 절에서도 계속 검토한다.

6) “우리는 행복한 국가를 짓고 있는 중이다(τὴν εὐδαίμονα πλάττομεν)”, 420c2.

을 마련하는 것인가?

이 의문들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호자에게 주어진 생활방식에 대한 특정한 평가로부터 플라톤의 국가가 그 구성원들에게 행복한 삶을 마련해주거나 보장하는 국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의심되었다. 그것은 외적인 조건 또는 물질적 구성과 행복한 삶의 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는 상식적이고도 건전해 보이는 관점에서 소크라테스의 제안을 점검할 때 청중들 혹은 독자들에게 더욱 선명히 자리 잡는 의심이다. 그런데 『국가』 속의 대화자들은 자신들의 과제이자 논의의 목적이 되는 것이 행복한 국가를 구성하는 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화자들의 논의 속에 행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내용 규정 혹은 심화된 이해의 계기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최상의 것과 적절한 것 사이의 대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좋은 것과 적절한 것 사이의 논의는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사람을 더 낫게 하는 것이 행복 논의에서 행복의 정당한 타이틀을 갖는다는 생각에 의해 지지되거나 반박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옴’은 국가의 이론적 시작을 논의하는 초반부 논의에서 이미 대화를 이끌고 가는 중요한 힘이었음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때의 ‘더 나옴’을 효율의 문제로 제한하는 해석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둘째, 소개한 유비에서도 엿보이는 사람과 국가 사이의 동형성 논제는 이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인물상 채색을 본연의 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채색가에게 전체의 상이란 어떤 의미 함축을 지니는가? 원래의 영역으로 돌아와 묻는다면, 유비로부터 확보한 설명, 즉 전체로서의 국가가 국가 건설자의 주관심이라는 설명은 혹시 그 국가에서 살게 될 각 개인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야 온전한 의미를 갖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비자족성의 극복 또는 보완을 위해 수립된 것이 국가라면 더 물을 것도 없이 국가 단위의 자족성이 그 국가의 목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개인 혹은 부분의 차원에서는 자족성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국가를 수립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해서 곧 자족성

이 바로 이 전체, 즉 국가의 목적이라는 결론이 이론의 여지없는 확고한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본 논문을 통해 세우고자 하는 또 하나의 논점이다. 좀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자족성 보다는 ‘더 나옴’, 더 낮게 됨이 플라톤이 세우는 국가의 목적 후보로서 더 잘 들어맞는다.

셋째,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염두에 두고 국가의 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 물음은 최초의 국가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일정한 정도 이상 논의가 진행된 후 정립된 국가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다. 해석자에 따라서는 양자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을 한 그림 안에 놓고 답변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행복한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라는 그의 의도 또는 자기이해와 달리, 플라톤이 세운 국가가 그 구성원들이 행복한 국가가 아니라는 이의제기가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플라톤 『국가』의 전체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디에서 확보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 세 물음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 1-2) 전체로서의 인물상, 전체로서의 국가

인물상을 채색하는 것과 국가를 구성하는 일을 유비관계에 놓았으므로 가장 뛰어난 부분에는 가장 아름다운 물감을 바르기로 한 채색가의 선택에 유추해 말하면, 소크라테스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뛰어난 자질에 덧붙여 그런 유의 훌륭한 업무까지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보상을 하는 것을 국가의 적절한 행복 생산법으로 간주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채택한 방식은 이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 채색가에게는 눈을 칠하는 일, 그것도 그 눈을 가능한 한 가장 아름답게 칠하는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물상’을 칠하는 일이 맡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난에 맞서 채색가가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아폴로기아는 이것이다.

더 이상 눈이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을 아름답게 칠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해서는 안 되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각 부분에 적절한 색을 칠하여 전체가 아름답도록 만드는지를 살펴야지요.<sup>7)</sup>

상의 여러 부분 각각을 알맞은 물감으로 칠해야 인물의 부분도 부분이 되며 사람의 상이 전체로서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것, 이것이 수호자들을 딱한 처지로 몰았다는 항의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제시할 변명의 중심이다. 여기에서 물감의 알맞음, 적절함은 그 물감이 그것으로 칠해질 것들을 얼마나 돋보이게 해주는 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물감이 칠해졌을 때 채색된 눈이 인물상의 눈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그 눈이 아니라 전체 인물상이 아름답게 돋보이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때 그 물감은 알맞은 물감이 된다. 채색가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 원칙에 따라 인물상을 칠해야 한다. 국가를 구축할 때도 이런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sup>8)</sup>

이 채색 방식 즉, 눈은 눈으로 보이고 팔은 팔로 보이며 다리는 다리임이 분명하도록 신체의 각 부분에 알맞은 물감을 색칠하여 채색가가 칠해놓은 것이 전체로서 하나의 인물상으로 완결되도록 하는 그 방식에 따라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적합한 것을 분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농부와 도공, 수호자들 각각을 농부와 도공 또 수호자로서 자신의 고유한 일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이 되도록<sup>9)</sup> 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전체 국가가 강해지고 잘 다스려질 때 이들의 행복에 관해 적절한 행복의 몫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데미만토스는 채색의 유비로 진행된 소크라테스의 설명에 설복되었다. 그러나 한 번 더 들여다보자. 소크라테스를 향한 항의의 내심은 각각에게 적절한 것(τὰ προσήκοντα)을 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행복한 국가를 실현하는 혹은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는 길이라는 변명 자체에 대한 반기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수호자에게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견과 도전이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편이 이 항의를 진지하고 심각한 것으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이

7) 『국가』 420d1-5

8) 가장 아름다운 색인 자주색으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부분인 눈을 채색하면 자칫 눈이 눈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듯, 수호자들을 마땅한 수호자가 아니게 할 위험이 있는 그런 행복을 수호자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9) 『국가』 421c1-2

런 주장에 맞서는지 재구성해볼 일이다. 즉 항의하는 이의 입장은 이렇다. 뛰어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어렵게 선발해 교육했고 이들에게 국가를 수호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시켰다면 물론 수호의 일이 이들에게 적절한 것이다. 이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당신이 만들어놓은 그 다른 편을 보라. 자신의 처자도 없고 자신의 자유거처도 없으며 소유한 재산도 없어서 도대체 “나의 것”이라고 부르고 확보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까지도 이들에게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반문으로 이 항의를 읽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들이 없이 살아야 하는 수호자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심각한 항의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항의를 통해 우리는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대해 더 자주 제기되곤 했던 후대의 비판과는 다른 방향, 다른 종류의 반문을 『국가』의 저자가 예상했었음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이 수립한 국가에서의 삶을 예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후대인들에게 더 잘 알려진 반론들은 오히려 이 국가에서 수호계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 생산계급이 맞게 되는 질 낮은 삶을 지적하는 비판이기 때문이다.<sup>10)</sup> 물론 작품 속에서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주고받는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는 플라톤의 입장에 충실한 등장인물이고 플라톤이 이들의 입을 통해 예상하는 반론 또는 그에 대한 재반론이 시대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작품 속에서 수호자들이 어떤 교육을 거치며 어떤 종류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조치할 것인지를 밝히자마자 아데이만토스는 대뜸 수호자의 곤란한 처지를 변호하고 나섰다. 어떤 국가를 행복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국가가 행복한 구성원들의 국가여야 한다. 행복한 국가를 세우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라고 진지하게 이해했다면, 이곳의 소크라테스는 수호자들을 또는 수호자들도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야 했다.<sup>11)</sup> 이와 같은 의문과 항의를

10) 가장 강력하고 파급효과 또한 컸던 것은 포퍼의 비판이었다. 플라톤의 소위 이상국가에서 살아가도록 되어있는 생산계급의 인민들에게는 가축의 처지와 별다를 것 없는 삶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그의 호소력 있는(?) 비난이다.

11) 플라톤이 세우는 국가에서 국가의 행복과 구성원들의 행복의 관계,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들 상호간의 행복 등에 관한 논의와 논란은 Taylor의 논문 “Plato’s Totalitaria-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국가』 비판에서도 보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라톤 비판으로부터 문제를 풀어가자.<sup>12)</sup>

## 2.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 비판과 적절한 것

### 2-1) 비자족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논의

소크라테스는 알려진 대로 사람들의 비자족성과 필요에 대한 고찰에서 국가기원의 설명을 가져왔다. 이 부분 논의를 편의상 초반부의 논의라고 하자. 인간은 자족적이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압축된 구절이<sup>13)</sup> 플라톤이 제시한 공동체(국가) 결성의 이유이자 공동체의 이론적 시작이다. 그러나 ‘필요’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의 성립을 충실히 얘기할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 비자족적인 인간의 여러 필요를 채울 것인가. 플라톤은 모여살이를 시작한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울 마땅한 방법으로 분업의 원칙을 제시했다.<sup>14)</sup> 분업의 원칙은 첫 번째 국가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후의 팽창한 국가 그리고 아름다운 국가(καλλινόπολις, 527c1)까지 관철되는 원칙이다.

플라톤이 세운 최초의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소한의 필요를 채울 목적으로 구성된 이 국가의 구성부분들, 즉 소크라테스가 등장시킨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목록이 소크라테스가 희망한 것과는 달리 꼭 필요한 사람들로 잘 짜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인간의 비자족성을 보완할 목적으로 세워졌다면 국가의 목표는 국가단위로서 확보될 자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움직

---

nism”도 잘 다루고 있다.

12)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4권 4. 특히 1290b21-1291b14.

13) 『국가』 2권 369b5-7.

14) 『국가』 369e2-370a6.



한 논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그럴듯한 판단과 연결하여 최초국가를 비판했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처럼 옷감 짜는 사람, 농부, 무두장이, 집짓는 사람으로 구성된 플라톤의 최초의 국가는 연이어 다른 구성부분들을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넷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국가를 채우고 『국가』의 대화자들은 이 국가를 최소 필요국이라 명명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여기에는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들이 망라되지도 못했고 플라톤은 각 요소들의 필요수준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불만 하나이다.<sup>15)</sup> 그러므로 이 국가는 자족적인 국가가 되지 못한다. 즉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플라톤이 거명한 필요, 필수는 그가 보기에는 좀 고약한 혹은 빈약한 필요라는 것이다.<sup>16)</sup> 필요의 단순한 충족을 위해서 수립된 국가와 그보다는 훌륭한 무엇을 목표로 삼는 국가가 구분된다면 국가의 이상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윈의 추가 해석을 빌려오면<sup>17)</sup> 자족성 개념은 먼저 경제적 필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족성과 행복 실현의 자족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윈이 보기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플라톤의 첫 번째 국가는 경제적 자족성에 매달린 국가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목표는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는 상태에 이르려는 것으로가 아니라 행복의 실현과 관계하는 행복한 자족성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시적인 목표라고 어윈은 해석한다.

자족성과 관련해 논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플라톤의 첫 번째 국가는 경제적 자족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라는 주장이 있다. 첫 번째 국가 혹은 최소 필요국가로 논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때에도 플라톤이 의도한 국가의 목표가 경제적 자족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가능성이 있음을 어윈은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족성보다 훌륭한 것, 즉 아리스토텔레

15)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신이 비판하는 플라톤과 달리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의 여러 구성요소(μέρος)들을 충실히 열거했다. 『정치학』 1290b38-1291b2 참고.

16) “ἀλλ’ οὐ τοῦ καλοῦ μᾶλλον”이라는 지적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읽을 수 있다. 『정치학』 1291a17-18.

17) Irwin, “Aristotle’s Defense of Private Property”.

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의 이상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행복 실현과 관련한 자족성이 플라톤이 구축하는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충족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이 글의 초입에 소개했던 항의와도 연결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이 문제와 관련해 플라톤을 직접 비판한 대목들을 점검하며 대답할 것이다. 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다른 연구자의 평가와 무관하게 질문을 좀 고쳐서 하나를 더 묻겠다. 플라톤이 세우는 국가의 이상,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은 과연 자족성이라는 개념으로 충분히 대표될 수 있는가?

『국가』 초반부의 논의에서 분업의 원칙은 단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려에서 제안되었을 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sup>18)</sup> 이것을 분업과 효율성 사이의 기계적 연관이라고 이름 붙여보자. 어원의 해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초반부의 논의는 분업과 효율성 사이의 기계적 연관을 넘어서거나 심화하는 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 플라톤의 논의에 등장하는 초기 국가는 효율성의 문제에 근거해서 노동의 분화가 결정된 국가이며 이 “돼지들의 나라”가 플라톤 『국가』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가 한마디로 모호하다는 것이다. 최초의 네 사람, 네 기능으로 성립하는 듯 했다가 곧 이에 덧붙여 대장장이, 가축돌보는 목부, 상인 등으로 팽창한 이 곳에서 정의 혹은 부정의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평가이기도 하다.<sup>19)</sup> 돼지들의 나라와 그리고 이 나라의 시민들은 정의로운가? 양보하여 답변하자면, 이 나라는 이 질문을 본격적으로 물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최소한의 단순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성의 적극적인 활동이 별로 필요치 않아 보이고 쉽게 만족을 얻고 공격적으로 굴어야 할 요인도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이들은 특별히 정의로운 것도 없지만, 부정의의 정도도 확실히 덜할 것이라고 어원은 추정한다. 그의 이와 같은 독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을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을 완화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초반부 논의는 효율이라는 도구적인 차원에서 노동의 분화를 고려했을 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나 각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좋음에

18) 어원의 위 논문 p. 205.

19) 『정치학』 1291a25-28.

대한 판단에 따라 분업이 주장된 것이 아니라는 이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앞 장에서 정리했던 논점과 문제들 가운데 일부에 대한 대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담당관이라 할 수 있는 군인·수호계급을 국가의 구성요소로 배치하지 않은 플라톤의 초기 국가는 정의·부정의가 제대로 문제될 수 없는 국가라고 단정했다.<sup>20)</sup> 어윈 역시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분업하는 이 국가에서라면, 그리고 이 원리가 본격적으로 재검토 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윈이 보기에 플라톤은 이 작업을 하지 않았다) 논의를 진행하며 다름은 국가에서도, 정치적 힘의 분배문제, 누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물음 역시 단지 도구적 효율성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플라톤의 『국가』 초반부 논의가 다루는 분업의 원리는 “단순한” 수단/도구적 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된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필요의 개념이 이와 같은 수단적 선 개념이 논의의 기본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sup>21)</sup>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의 반대 근거를 우리는 텍스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분업의 원리가 제시되는 바로 그 부분에 연이어<sup>22)</sup>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성향이 다양함을 지적하고 본성에 따라(κατὰ φύσιν, 370c) 분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단순한” 효율을 위해 분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윈은 여기에 맞설 것이다. 이와 같은 언급은 있었지만 본성 또는 능력의 상이성이 분업을 구상하게 하는 주요 이유라거나, 분업이 각 사람의 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도구적 효율성이 플라톤의 초기 국가에서 분업을 결정한 유일한 근거였다고 해야 마땅하다고.<sup>23)</sup> 그러나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요 때

20) 『정치학』 1291a21-24.

21) 그의 논문 3, 4절. 어윈은 행복에 대한 통속의 개념(common conception)이 소크라테스에게서도 통용되다가 플라톤이 갑자기 아레테에 입각해 행복의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고 지적한다.

22) 『국가』 370a7-c5.

23) 어윈의 논문 주 6) 참고.

문에 국가를 요청했고 효율을 근거로 분업했으면 이 국가는 보다 좋은 것에 대한(τοῦ καλοῦ μᾶλλον) 목표를 갖지 못하는 국가인가?<sup>24)</sup>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리고 어원처럼, 필요의 충족이라는 목표는 국가가 그리고 국가를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고상한 목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가? 필요와 행복은 상관이 없는 개념들인가? 도구적 선과 본래적 선은 실제의 삶에서도 엄밀히 구분되는 것인가?

그러나 국가 내의 삶이 자기 자신에게 더 낫다는 판단이 없다면 최소한의 국가, “돼지들의 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sup>25)</sup> 플라톤 논의에서 국가의 목적은 그 국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구성원들에게 국가 없는 삶 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수준의 복잡성을 띠고 얼마나 명확하게 정식화되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것을 이유로, 진행된 논의가 국가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빈약한 목적을 가졌을 뿐이라고 단정하거나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자기의식을 제한하는 것 역시 해석자가 취할 태도로는 적절치 못하다.<sup>26)</sup> 또한 첫 번째 국가에서 농부와 목수, 옷감 짜는 사람 등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는 사실이(보기에 따라서는 빈약하거나 고약한 필요라고 할 수는 있겠다) 이 국가가 훌륭한 목표(καλόν)를 가진 국가가 못된다고 말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sup>27)</sup> 어원이 쓰는 “단순한 효율”이란 무슨 말인가. 효율성

24) Barney, “Platonism, Moral Nostalgia, and the ‘City of Pigs’”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진 것이기는 하나 『국가』에서 다루는 초기 국가의 논증 내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담고 있다.

25) οἰόμενος αὐτῷ ἄμεινον εἶναι, 369c7.

26)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는 플라톤의 작품이 대화의 형식으로 쓰여 있다는 사정도 포함한다.

27) 우리 논의의 이즈음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자족성의 확보를 명시적인 주목표로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에서 농부는 사실 정당한 국가의 성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플라톤은 국가의 정당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주었고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 절에서 내가 요약 인용할 5권의 유비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세우는 국가의 수호자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 부양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농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에서는 노예신분이다. Annas도 “Aristotle on Human Nature and

에서 효율이란 ‘--에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되는 개념이다. 즉,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율적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원처럼 도구적인 선과 연결해도 좋다. 그러나 효율성 혹은 도구는 목적과 연결되는 효율성이며 그것이 향하는 목적에 조화하는 도구이다.

초기의 국가는 무엇을 목표로 했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나은가라는 생각과 판단에 근거해 국가를 결성했다. 좋은 삶, 더 나은 삶이 목표이다. 이 목표가 어떤 국가를 훌륭하지 못한 국가, 단지 생활의 필요만을 위해 세워진 국가라고 평가하게 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기원에 대한 초반부 논의로부터 우리는 국가의 목표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목표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리고 어원의 해석처럼 ‘단순한 효율의 관점에서 노동을 분담하여 경제적 자족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때에도 이미 각자에게 더 나은 삶이 국가의 목표이다. 분업은 이 목표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으로 세워진 것이고 그 근거는 인간의 본성이 상이하다는 파악이었다. 본성에 따라서 분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플라톤 자신이 국가를 구성하며 채택한 논증에서도 논거점을 끌어올 수 있다. 국가의 성격은 사람의 성격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것, 양자의 구조적 동형성이 『국가』의 유명한 기본 테마 중 하나이다.<sup>28)</sup> 우리는 이 동형성 논의를 국가의 구조성립에 대한 논거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세워지고 잘 운영되는 국가, 즉 국가의 목적을 적절히 수행해가는 국가에서 유효하게 관철되는 원칙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온당하다. 혹은 더 나아가 이 구조적 동형성이 국가의 실제에서까지 일관되게 실천되는

Political Virtue”에서 관련된 논의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진행했다.

28) 『국가』 435e1-436a3 “우리들 각자 안에는 국가에 있는 것들과 똑같은 종류와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곳 이외의 어떤 다른 곳에서 국가의 것들이 유래했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한 플라톤의 분석 그리고 국가의 성격, 아레테가 구성원의 성격 또는 구성원의 아레테로 환원하는가와 같은 재미있는 문제는 다음 논문의 기획으로 미룬다. 몇 가지 흥미로운 논점과 지적은 Williams, “The Analogy of City and Soul”과 Lear, “Inside and Outside the Republic” 등에서 비교할 수 있다.

가를 검토함으로써 그 국가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구조적 동형성은 부분 나누기 및 각 부분에 적합한 기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거나 최소한 그 곳으로 논의를 이끌고 있고 적절한 기능에 대한 논의는 곧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눈 혹은 팔, 다리를 특별히 아름답게 칠해서 그것이 인물상에 속하는 눈, 팔 또는 다리인지조차도 불명해지도록 만들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인물상이 제대로 된 인물상으로 보이게끔 각 부분을 채색해야 한다는 것이 아테이만토스에게 준 그의 대답, 아폴로기아이였다. 물론 수호자 계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이 도입되었을 때 인물상의 유비는 더욱 적절한 비교의 대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초반부 논의에 등장한 분업의 원리는 인물상을 여러 부분들의 조화로 보게 하는 근거가 되며 국가의 부분들을 적절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구성하게 하는 중요한 실마리이다.

그런데 다른 한 편에서 본다면 소크라테스가 마련한 이 변명을 마치 구성원들의 행복이 주 관심사가 아니라, 행복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행복한 국가 자체’가 『국가』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가와 사람의 동형성 논의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또한 이미 국가의 설립 근거(기원)를 설명하며 더 나은 삶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에서 국가, 공동체의 존재 의의를 찾았음을 상기한다면<sup>29)</sup> 인물상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채색가로부터의 유비가 『국가』의 논의에서 행복 주체의 우선성, 국가 구성의 우선성이 구성원들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국가 또는 국가 자체에 있다는 선입견을 지원하고 있다고 추단할 필요는 없다. 그 구성원들을 떠난 국가 자체,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존재의 의미를 채우고 있다고 자임해도 좋은 국가란 『국가』에서 그 정당한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29) 『국가』 369b5-11.

## 2-2) 소크라테스가 강제한 수호자계급을 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변명

초반부 논의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미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가 국가의 어디에 무엇과 더불어 발생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이것이 여러 구성부들 간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임을 시사했다.<sup>30)</sup> 어원이 지적인 대로 최초의 국가에서 정의의 문제가 주제적으로 탐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정의의 문제가 국가를 구성하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로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님을 초반부 논의에서도 예견할 수 있다. 단순한 생활, 소박한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정의로울 것도, 부정의할 것도 없다는 어원의 해석은 정의 개념을 특정하게 그것도 비 플라톤적으로 한정하고 이것에 입각해 소크라테스의 최초의 국가를 평가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어떤 구조로 국가가 세워질 때 국가가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소크라테스 그리고 우리의 시력은 날카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 지혜, 용기, 절제와 같은 다른 탁월함들에 대한 고찰에 이어 정의의 발견을 선언하는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국가 구성의 원칙이었던 분업의 원칙을 평가한다.<sup>31)</sup> 처음부터 발 앞에 굴러다니고 있었는데도 그것이 정의의 원칙임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기원을 논의하며 제안했던 원칙이 바로 정의의 원칙에 다름 아님을 주제화했다.<sup>32)</sup>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수호자, 통치계급이 정의의 전담부서가 아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다른 논의구조, 다른 정의의 원칙을 갖고 있는 플라톤의 『국가』를 대하며 수호자 계급이 정식으로 확립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정의가 아직 등장하지 않는다고 할 일은 아니다. 그것이 명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의의 문제를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구조적 원리가 소크라테스의 최초의 국가에서는 전혀 실현되지 않

30) 『국가』 372e-373a.

31) 『국가』 432b7-433b2.

32) ὅτι ἕνα ἕκαστον ἐν δέοι ἐπιτηδεύειν τῶν περὶ τὴν πόλιν εἰς ὃ αὐτοῦ ἢ φύσις ἐπιτηδειοτάτη πεφοικία εἶη, 433a5-6.

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비판할 때 플라톤이 수호자 계급으로부터 가족과 재산의 소유를 부정한 부분에 주력한 것은 사실이다.<sup>33)</sup>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이 불완전하고 오독의 여지가 있는 비판임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플라톤의 중심 주장에 대한 정식 공격을 통해 『국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좋을 만큼<sup>34)</sup>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이 불충실한 비판이거나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린 비판은 아니다. 플라톤의 정치철학 이론을 구성하는 개념들의 지형도를 그릴 때 여기에서 가족과 재산 소유의 금지 또는 재산 및 처자의 공동 소유 문제는 단지 『국가』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깎아내릴 수도 없다. 소크라테스를 위한 아데미만토스의 격정스러운 예상은 플라톤의 후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현실화한 셈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생각은 이렇다. 국가 역시 공동체(κοινωνία πολιτική)인 까닭에 그것은 무엇인가의 공유(κοινωνία)를 포함한다. 공유할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공유하고 함께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함께 해야 할 것을 함께 해야 한다. 이상적인 삶을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공유와 그렇지 못한 공유를 그 대상(주제)과 방식에서 구분하겠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의도라 할 수 있다. 그의 구분에 의하면 플라톤이 제안한, 혹은 강제한 공유는 삶 전체에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정치 공동체로<sup>35)</sup> 나아가는 공유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공동체의 목표는 자족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으로서의 비자족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체가 국가이므로 그 공동체의 목표는 자족성이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

33)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2권의 주요논의들은 플라톤이 말로써 수립하는 국가에 대한 비판이고 κοινωνία, 재산과 처자의 공동소유를 문제 삼고 있다.

34) 이에 대해서 Stalley의 논문은 이런 고전적인 비판들을 소개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에 대한 비판이 때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과 입장에 대한 충실한 고려 없이 가해진 것일 수 있다는 온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Aristotle's Criticism of Plato's Republic".

35) 『정치학』 1260b26-29. 소크라테스 역시 『국가』에서 국가의 기원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자신의 탐구과제가 정의를 그자체로서 파악하고 그것의 힘과 관련해 정의가 어떻게 유익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와 같은 목표의 공동체, 국가를 보존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이 물음과 관련해 『국가』가 채택한 가정은, 국가의 보존은 곧 국가의 단일성을 확보하는 것이고<sup>36)</sup> 소크라테스는 공유, 구체적으로는 처자와 재산의 공동소유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로서는 이와 같은 소크라테스의 가정이 근본적으로 잘못 세워진 가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하나가 아니라 다수, 여럿(πληθος)임을 본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하는 비판의 주요 대목이 이 글의 첫머리에 소개한 부분을 전후로 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호자의 생활방식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제안(강제)에 맞추어진 사정이기도 하다.

자신의 관점에서 수행된 것이기는 하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추구하는 이상이 공동소유를 통해 이룩될 단일성이 아님을 역설한다.<sup>37)</sup> 재산의 공동 소유, 처자의 공동 소유는 ‘하나의 국가’를 오히려 방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을 향한 비판의 결론이었다. 예컨대 이와 같은 공유가 실행된다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고 곧 모두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모든 아이가 그 누구의 아이도 아니고 결국 누구도 어떤 마땅한 책임·의무도 지지 않는 사태가 초래할 것이며 처자의 공동소유를 통해 얻는 것은 말하자면 인류의 파괴라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이다.<sup>38)</sup> 재산의 공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안은 “친구의 것은 공동의 것(κοινὰ τὰ φίλων, 1263a30)”<sup>39)</sup>이라는 격언의 해설을 통해 요약할 수 있다. 재산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사적인 것이다. 소유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그 사용만 공동으로 하자고 처방한다.<sup>40)</sup> 재산과 관련해서는 공동소유가 아니라 공동사용으로서의 공유를 받

36) τὸ μὲν εἶναι τὴν πόλιν ὡς ἄριστον ὃν ὅτι μάλιστα πᾶσαν, 1261a15.

37) 『정치학』 1261b 16-20 및 그 이하

38) 『정치학』 1262a25-40

39) 플라톤 역시 『국가』 5권 449c 이하에서 이때의 κοινωνία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40) 『정치학』 1263a38-39

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가상의 항의에 덧붙였던 수호자들의 처지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세밀한 보고를 보면 이들은 참으로 딱한 처지에 몰려서 산다고 할 수도 있다.

그나마도 끼니를 위해서일 뿐, 여느 용병들처럼 먹는 것 이외에 보수를 받는 것도 없어서, 사사roi 여행을 하고자 해도, 이들로서는 할 수가 없으며, 그리고 정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또는 자기가 쓰고 싶은 그 밖의 다른 어떤 곳에, 이를테면 행복한 사람들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그런 곳에 돈을 쓰는 것도 이들로서는 불가능하이. 비난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자넨 이것들과 그 밖에 이와 같은 유의 것들을 아직 많이 남겨 놓은 채로 있다네<sup>41)</sup>

아리스토텔레스는 재산의 소유를 인정하고 공동사용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소크라테스의 수호자들에게는 봉쇄된 듯 보이는 자유인<sup>42)</sup>을 확보하고자 했다.

몸 보다는 영혼이 동물에게 더 참된 부분인 것처럼 국가의 경우에, 생활의 필수품을 담당하는 사람보다 정의를 담당하고 숙고하는 전사계층이 국가에는 더 필수적인 부분이야 마땅하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견지하는 입장의 하나이다.<sup>43)</sup> 이와 유사한 생각은 아테이만토스의 지적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즉 “국가가 진정으로 이들에게 속함에도” 이들에 대한 대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은 말하자면 『국가』를 비판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 달리 다른 구성부분들이 아니라 이들 수호자들이 국가에 더 필수적인 요소라거나 국가

41) 『국가』 420 a2-7. 박종현의 번역 재수록.

42) 『정치학』 1263b11-14. 영어권에서는 generosity로 번역되곤 하는 ἐλευθεριότης를 ‘자유인<sup>42)</sup>’으로 옮긴 것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번역자 이창우·김재홍·강상진을 따라서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4권의 1장이 관련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43) 『정치학』 1291a25-28, 국가의 모든 구성 부분이 아니라 전사계층이 영혼에 비유되었다는 점, 정의의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진정한 대상으로 이 계층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각점이 플라톤의 그것과 선명히 구분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플라톤의 것이 아니다. 물론 이 항의가 제기된 4권의 초입에서도 수호자 계급의 특별한 위치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 그러나 살펴 보면 알 수 있듯 그 논의는 이들에게 국가가 귀속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물론 좋은 것들을 이들에게 더 배정하는 것이 마땅한 분배법이라는 것도 실제와는 거리가 먼 생각이다.

이들을 수호자가 아닌 자들로 만들어 버릴 그런 행복을 수호자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강요하진 마시오.<sup>44)[...]</sup>

(만일 그렇게 한다면) 농부는 농부가 아니게 되고 도공도 도공이 아니며 그 다른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국가가 성립하는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요. 설령 그렇더라도 다른 경우에는 별 일이 아닐 수 있죠. 변변치 않아 지고 타락한 구두수선공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면서도 그런 사람인 체 하더라도 국가로서는 뭐 끄찍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법률과 국가의 수호자들이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도 수호자인 양 여겨지지만 할 때 당신은 분명히 볼 것이요, 이들이 온 국가를 파멸시키리라는 것을. 하지만 또한 이들만이 국가를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할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도.<sup>45)</sup>

그렇다면 최소한 양자를 동등하게는 다루어야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처음 국가를 세우면서는 이 계급을 빠트렸고 또 후에는 소크라테스 식의 방식으로 이들에게 공유를 강제함으로써 수호자들을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으로부터도 차단했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이다. 수호자를 국가, 전체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플라톤의 생각은 처음 소개한 유비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하지만 수호자가 사람의 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는 입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소크라테스가 진행한 플라톤의 『국가』에서 대화의 상당 부분이 수호자 교육과 양육에 할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sup>46)</sup>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그의 대화 동료와 함께

44) 『국가』 420d5-e1.

45) 『국가』 420e8-421a8.

46) 오히려 Meyer는 국가의 구성원들, 시민들을 유익하게 할 목적으로 세워진 플라톤의

세우는 국가가 수호자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용에서도 그 일단이 드러나듯, 수호자 계급의 타락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국가의 타락에 대한 경계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수호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과 국가가 이들의 것이며 최상의 것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로부터 독립적인 생각이다.

채색하고 있는 상이 하나의 아름다운 사람의 상으로 보이도록 해야 하듯이 훌륭한 어떤 계급이 유독 행복하게 보이도록 치장하는 것이 행복한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답변이었다. 수호자들에게 공동식사와 공동주거지만을 허락하고 사유재산도 가족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를 위한 조치였다. 모든 구성원들을 각자에게 적합한 고유 영역에서 최고의 장인이 되도록 해야 할 국가 수립자들에게는 수호자들을 이와 같이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

### 3. 국가의 목표

#### 3-1) 논리적 틀

국가는 서로 다른, 때로는 상호 대립하는 부분(욕망)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국가를 수립하는 목표는 물론 국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더 나은 삶의 실현과 관련해 이야기되어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논의에서 그가 세운 국가는 비자족적인 인간들이 그러한 자기인식에서 출발하여 결성한 국가이

---

국가에서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플라톤이 정작 그의 국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계급에게 왜 이와 같은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지를 따지고 든다. “Class Assignment and the Principle of Specialization in Plato’s *Republic*” Meyer의 발표는 플라톤의 교육 프로그램 전체를 직업교육의 틀로 규정하는 바람에 흥미로운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었지만 플라톤 논의의 핵심을 찌르지는 못했다. 생산계급, 장인계급의 무능함을 부각시켜 이들이 수호자 계급을 위한 직업교육의 수혜자가 못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플라톤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논의는 비자족성의 보완 방식에 대한 논의를 그 중심에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족성이 국가의 목표라고 자동 정식화되는 것은 아니다. 비자족성에 대한 인식에서 공동체 논의가 출발했고 이와 같은 현실을 해결 내지 보완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 국가 공동체라면 효율적인 충족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국가가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가 자족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개인으로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욕구와 필요를 보다 성공적으로 채워주는 국가여야 한다. 어떤 방식을 통해 이와 같은 충족이 가능할 것인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등은 국가 건설자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데미만토스가 당연히 함께 고심해야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국가』 초반부에서부터 이들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우리가 이 글에서 집중하여 살펴본 본문 부분도 이와 같은 시선에서 조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족성이 플라톤의 국가 이상이라는 주장은 이것이 상당히 개인성 있는 논제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우선, 텍스트로부터 그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비자족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체가 성립됨을 소크라테스가 논의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자족성을 공동체의 목적으로 확립시키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존재하지도 않는 논리적 자동 연결관계를 가상하여 이 국가의 목표가 자족성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추정하는 것은 오류이다. 자족성이 소크라테스가 세우는 국가의 이상이라고 말하거나 전제하는 해석가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하여, 개인은 비자족적이라는 현실 판단과 어떤 국가 수립자(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혹은 플라톤)가 국가 건설의 목표로 세울 수도 있고 세우지 않을 수도 있는 자족성이라는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간극을 간과했거나 무시한 것이다.

설령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족성의 확보를 국가의 목표라고 놓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능한 한 다수의 부분들로 전체를 채워야 한다거나 낮은 단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만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sup>47)</sup> 국가가 목표로 해야 하는 이상적인 상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 3-2) 또 하나의 유비로 돌아옴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해서도 유비를 소개한다.<sup>48)</sup> 이 유비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국가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국가를 분열시켜 하나가 아닌 여럿으로 만드는 것이 국가로서는 가장 나쁜 것이다.

한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시민이 최대한 비슷하게 즐거워하거나 괴로워 할 경우, 바로 이 쾌락과 고통의 함께 함(κοινωνία)이 국가를 단결시킨다.

쾌락과 고통의 달리함(ιδίωσις)이 국가를 해체한다.

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상태에 있는 국가가 가장 훌륭히 경영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손가락을 다쳤을 때, 부분만이 아니라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전체가 함께 고통스러워해서 그냥 손가락이 아파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손가락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상태에 있는 국가이다.

소크라테스는 이 유비를 통해서도 가장 탁월한 부분이 가장 탁월한 대접을 받아야 국가의 목표가 달성되거나 국가의 단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계급의 단일성이 전체 국가의 단일성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다. 단적으로 플라톤의 국가에서 수호계급의 구체적인 생활방식과 생산계급의 생활방식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분열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방식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국가 전

47) 『정치학』 1261b10-15.

48) 『국가』 5권 462a2-462e7.

체의 단일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단일성·행복·정의는 특정 계층의 상태로 환원될 것이 아님을 『국가』는 이미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다. 각 구성부분들이 그 국가의 구성부분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삶을 살 때, 함께 함(κοινωνία)과 하나의 국가(μία πόλις)의 성립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따라서 그것에 기대고 있는 관련된 다른 해석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과녁을 정조준했다고 할 수 없다. 이미 국가의 시작을 플라톤의 방식과는 다른 기제로 풀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sup>49)</sup> 자족성 확보가 국가가 성취해야 할 목적이자 주요한 선으로 자리잡았지만<sup>50)</sup> 그러나 이것이 플라톤에게조차 골장 썩을 수 있는 국가의 목적은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부분들의 고유색을 지음으로써 전체의 단일성 혹은 하나의 단위로서의 단일성을 달성하려는 것도 소크라테스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이 유비에 등장하는 하나의 국가라는 이상은 이 글의 첫 장에서부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인물상에 대한 유비의 내용과 연결된다. 채색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물상을 전체로 보고 채색하되, 각 부분에게 적절하고 알맞은 물감으로 각 부분을 칠해야 한다. 이 때야 인물상의 눈은 인물상의 눈이 되며 다리는 그것의 다리가 되고 이로써 **인물상이** 아름답게 채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눈 혹은 다리와 별개로 존재하는 인물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절한 것’은 이렇게 인물상을 눈, 다리 등과 연결하며 눈과 다리가 인물상의 그것으로 기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가능한 한 한 사람처럼 작용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를 조직하고 그 원칙에 따라 국가가 경영되어야 국가

49) 이에 대한 압축된 논의로 Everson의 “Aristotle on the Foundation of the State” 참고해도 좋다. 국가의 기원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비교함으로써 국가의 본성, 목적에 대한 양자의 생각의 구조를 정교화 해보는 작업도 다음 기회의 일로 남긴다.

50) 『정치학』 1252b28-31, 앞에서 언급한 논문에서 안나스는 다양한 국가구성원들의 신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평가가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의 이상인 자족성 개념을 논의했다. 이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에 대한 다른 연구가의 (심한) 평가 또한 짚막하게 소개한다.

의 목적은 성취될 수 있다.

행복 개념과 관련해 무엇으로 각 부분을 그리고 전체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우리가 보았듯이 아테이만토스의 첫 호소에서는 마치 소위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가 행복함 또는 그 반대의 상황을 주로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크라테스의 침언도 당장은 이에 크게 반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표현을 빌려 쓴다면, 행복에 대한 통속적인 개념은 대화 속에서 지속되거나 지지받는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행복의 문제는 ‘적절한 것’과의 관계에서 혹은 각 부분이 그리고 전체가 자신의 일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되고 운영되는 국가에서야 충실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sup>51)</sup>

---

51) 최근의 연구물로는 Devereux,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Happiness in Plato’s Republic”, Reeve, “Goat-Stags, Philosopher-Kings, and Eudaimonism in the *Republic*” 그리고 유사한 문제를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해 살펴보고 있는 Brown, “Wishing for Fortune, Choosing Activity: Aristotle on External Goods and Happiness”를 참고하라.



## 참고문헌

- 플라톤, *Politeia*, in *Platonis Opera* IV, (I. Burnet), Oxford, 1902.
- 플라톤, 『플라톤의 국가·政體』(박종현 역주), 서광사, 1997.
- 아리스토텔레스, *The Politics of Aristotle* vol II, IV, (W. L. Newman), Oxford 1887.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창우·김재홍·강상진 옮김), 이제이북스 2006.
- Annas, J., “Human Nature and Political Virtue”, in *The Review of Metaphysics* 49, 731-753, 1996.
- Barney, R., “Platonism, Moral Nostalgia, and the 'City of Pigs'”, in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XVII 2001, Brill, 2002.
- Brown, E., “Wishing for Fortune, Choosing Activity: Aristotle on External Goods and Happiness”, in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XXII 2006, Brill, 2007.
- Devereux, D.,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Happiness in Plato’s Republic”, in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XX 2004, Brill, 2005.
- Everson, S., “Aristotle on the Foundation of the State” in *Political Studies* 36 89-101, 1988.
- Irwin, T. H., “Aristotle’s Defence of Private Property”, in *A Companion to Aristotle’s Politics* (eds. D. Keyt & F. D. Miller Jr.) Blackwell 1991.
- Lear, J., “Inside and Outside the *Republic*”, in *Phronesis* 37pp. 184-215 1992.
- Meyer, S. S., “Class Assignment and the Principle of Specialization in Plato’s *Republic*”, in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XX 2004, Brill, 2005.
- Reeve, C. D. C., “Goat-Stags, Philosopher-Kings, and Eudaimonism in the *Republic*”, in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XXII 2006, Brill, 2007.
- Stalley, R. F., “Aristotle’s Criticism of Plato’s *Republic*”, in *A Companion to Aristotle’s Politics* (eds. D. Keyt & F. D. Miller Jr.) Blackwell 1991.

250 인문논총 제61집 (2009)

Taylor, C. C. W., "Plato's Totalitarianism", pp. in *Plato's Republic: Critical Essays* (ed. R. Kraut) 31-48 1997.

Williams B., "The Analogy of City and Soul" in *Exegesis and Argument: Studies in Greek Philosophy Presented to Gregory Vlastos*, pp. 184-215 1973.

원고 접수일: 2009년 4월 2일

심사 완료일: 2009년 5월 6일

게재 확정일: 2009년 5월 28일

ABSTRACT

---

The *telos* of the State: Self-sufficiency, Happiness,  
and *ta prosēkonta*

Kim, Hyekyong

When Socrates leads the discussion about the beginning of a (theoretical) city in *Republic*, self-insufficiency and various needs which individuals undergo are the founding reasons of that establishment. So, it might seem natural to take that the very self-sufficiency would be the task and aim of his city. In this paper I've reexamined the thesis that the self-sufficiency was the real ideal, *telos* of Plato's state. Aristotle's interpretation and critic on that point have been reconsidered. One may *also* argue that the division of labor, the running principle Plato has advocated, serves his city only as a tool for the efficiency. But the division of labor is not a "simple" tool to utilize the fulfillment of necessities. It was a intentional efficiency to the aim of the state from the very beginning.

Happiness (*eudaimonia*), not self-sufficiency is the proper aim of Plato's state. But Socrates himself had met some serious challenges in the course of immediate dialogue. That is, he has not allowed his guardians the happiness they deserve. The success of defense (*apologia*) against that challenge mainly depends on the clarification, or reorientation of 'happines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what are appropriates (*ta prosēkonta*)'.